

'현우경' 이야기 (41)

대시의 깨달음 ①

세상 구경하다 저지 패거리를 만나다

옛날 니구루타리는 바라문이 있었다. 그는 총명하였고 여러 학문에 두루 통달하였으며 타고난 재주가 뛰어났다. 왕 또한 그를 존경하여 받들어 스승으로 섬겼다.

그 바라문은 가진 재산이 왕과 다름없을 만큼 부자였으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다. 바라문은 고된 끝에 범천, 제석천 사왕천 마해발라천과 그밖의 여러 하늘과 해 달 별과 산 강 나무들의 신 등 어디에나 두루 기도하고 제사를 올리고 정성을 다해 공덕을 쌓았다.

그의 기도는 십년 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날 부인은 태기를 느꼈다.

"아무래도 큰 용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아서 사내 아이인듯 싶습니다"

바라문은 부인의 손을 딱딱 잡았다.

"고맙소. 드디어 대를 이을 자손을 얻게 되는구려"

바라문은 허벅지에 명하여 부인을 극진히 보살피게 했다. 부인이 움직일 때에는 부축하고 음식은 더욱 맛난 걸로 차려주었

으며, 자리는 아주 곱고 부드럽게 하는 등 온갖 정성을 쏟았다.

그렇게 열 달이 지났고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는 예상대로 사내였다. 몸은 자금색이요 머리털은 검푸르며 얼굴은 단정하고 반듯한 용모는 누가 봐도 귀상이었다. 바라문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보고 기쁨에 넘쳤다. 그리고 곧장 관상가들을 불러 함께 상을 봤다. 그들은 아들의 용모를 자세히 살펴보고, 매우 기이한 상이라 찬탄했다.

"이 아기의 생김새에 복덕이 철철 넘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으며 천하가 우러러 보는 큰 일을 할 상입니다"

바라문은 매우 기뻐하여 그들에게 이름을 짓게 했다.

"그렇다면 우리 아들에게 맞는 이름을 하나 지어 주게"

"이 아기를 잉태한 뒤로 부인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없었습니까?"

"이 아이 어미는 본래부터 남을 미워하며 인자한 마음이 적고 지혜를 닦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를 잉태한 뒤 심성이 달라



삼화·강병호

저 남의 고난을 가없이 여기기를 마치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고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탐하거나 아끼는 일이 없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말했다.

"산모가 그렇게 변한 것은 이 아기의 뜻이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크게 베풀라는 뜻의 대시(大施)라 하소서"

대시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아버지는 아

들 매우 사랑하여 사시사철 살 집을 따로 지었다. 겨울에는 따뜻한 집, 여름에는 시원한 집, 봄과 가을에는 또 그에 맞는 집에서 살게 했고 많은 시녀들이 두루 시중들게 했다. 아이는 총명했고 학문을 좋아했다. 온갖 책을 섭렵해 문장에 통달했고 그 뜻도 깊이 새겼다. 그리고 많은 기술을 배워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렇게 위풍당당히 걸어가는 대시의 행렬에 불청객이 끼어들었다. 해진 옷을 입

다. 밖에 나가 세상을 보고 싶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합니다. 밖으로 구경을 나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분부했다.

"내 아들 대시가 밖에 나가 보고 싶어한다. 거리를 깨끗이 쓸어 온갖 더러운 것을 치우고 여러 가지 기를 세우고 꽃을 뿌리고 향을 사르고 길을 장식하여 아주 정결하게 하라"

준비가 끝나자 대시는 일곱 가지 보석으로 장식한 흰 코끼리를 타고 나갔다. 종을 치고 북을 울리며 행진곡을 연주했다. 천대의 수레와 만 마리의 말이 앞뒤로 호위하면서 큰 길을 지나 성 밖으로 나갔다. 그 때에 온 나라 백성들은 누각 위, 혹은 길 양쪽을 끼고, 서로 다투어 구경했다. 그들은 대시의 모습을 보고 저마다 감탄했다.

"참으로 놀랍고 장하다. 저 위엄과 생김새는 마치 범천 같구나"

그렇게 위풍당당히 걸어가는 대시의 행렬에 불청객이 끼어들었다. 해진 옷을 입

고, 부서진 그릇을 들고 상스런 말로 구경하는 저지 패거리들이었다.

"적선 좀 하십시오"

대시는 그들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너희들은 어찌 이런 몰골로 다니며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들은 대답했다.

"저는 어렸을 적 버려져 부모 형제도 친척도 없습니다. 빈궁하고 고독하여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저는 오랜 병이 있어서 노동할 수 없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 번 파산을 당하고 빚만 잔뜩 져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걸하고 다니면서 남은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대시는 이들의 모습이 그저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세상에 이런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참으로 슬프구나"

(다음 호에 계속) 구성=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팔만 대장경 속 우화 ④3

- 세속의 때부터 씻어야 한다 -

구성-김흥인

옛날 인도에 부모가 꿈쩍이 아끼는 외아들이 있었다.

좋은 스승을 찾아 공부도 시켰다.

많이 줌 가르쳐 주세요~

염려 마세요!

그러다가 어느날 결심을 했다.

절에나 들어가자!

부처님은 관대해서 잘 대해주시길거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얻고자 하면 먼저 청정한 행을 갖춰야 하느니라!

한데 너는 세속의 때를 씻지 않고 불문에 들어오려 하는구나!

그렇게 마을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나 외아들은 전혀 노력을 안했다.

아! 너 잠자러 왔니?

구제 불능 이구만!

포기하겠 습니다!

부모는 재산을 아들에게 맡겼다.

장사는 자신 있어요!

그래! 이 집을 팔아서 밭전을 만들어주마!

차라리 집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 못하느니라!

우선 부지런히 일해서 집안의 근심을 없애고... 예의를써 말과 행동을 하여 존경받는 사람이 되거라!

아들은 새출발을 하였다.

허허! 아들이 공부를 해요!

해가 서쪽에서 났나?

그러나 전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다.

흠흠...! 되는데 없네!

솔로 나날을 보내던 외아들은

결국 거리의 부랑자가 되었다.

남들은 부모가 팡팡 밀어주는데...

난 뭐냐? 그지같은 세상!

부모를 섬기며 열심히 일과 공부를 하였고

부모를 섬기며 열심히 일과 공부를 하였고

이윽고 부를 쌓아 덕을 베푸니 청천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천천히 같으세요~

너무 고마우이~

참으로 훌륭해!

성지순례는 미암사로, 방생은 백마강으로

세계최대 와불, 의자왕 출가한 곳, 소원성취 쌀바위, 진신사리증과, 인체에 효험약수 (점심공양, 입장료 무료, 단체 및 개인 성지순례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미암사의 연혁

미암사는 부여에서 서쪽 보령 방향으로 16km쯤 되는데, 부여에서 15분쯤 가다가 구룡천을 따라 40분 국도로 4km정도 올라가면 왼쪽으로 금북정맥 계향산이라는 아름다운 명산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백제시대 침류왕때 쌀바위에 유씨 부인이 공을 들여 쌀도 나오, 자손도언어 소원도 성취했다 하여 큰 영험이 있으므로 쌀바위(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이름을 따서 무왕께서 쌀미(米), 바위암(岩), 미암사(米岩寺)라 하였다. 사촌마을을 미암부락이라고 했다.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응용 평가센터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원적외선이 92.1% 방출 됨으로 노화방지, 성인병 제거, 중금속제거, 곰팡이 번식방지, 신진대사 촉진, 혈액순환 등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미암사 만청스님은 그 후 몇차례 전소되어 일부 복원 하고 있으며, 지금은 다시 전통사찰 양식으로 고증반야 복원 불사 중에 있다. 또한 1998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던 바, 2004년 납골 친견당시 자연적으로 3과로 자리를 옮겨 증과원 신비한 기적을 일으켰으며 2010년 9월 10일 진신사리 1과를 부여 백제 재현단지 능사에 기증 하였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백제권 불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부동정심의 대원력을 세워 국운융창, 국민화합을 위한 대차대비하신 삼계의 도사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 세계최대열반상을 2005년 4월 17일 미암사 도랑에 전국사부대중의 동참으로 원만성취 조성을 회향하게 되어 점안식을 봉행하게되었다.

소원성취기도도랑 불교성지 미암사에 오셔서 악업은 소멸하고, 무량공덕 쌓으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오. 적멸보궁 세계최대열반상 불교성지 미암사는 성지순례코스로서 가장 적당하며, 찾아오시는 불자들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암사 TV, 라디오방영 사례

mbc 드라마계백 / kbs2 전설의고향 / mbc 라디오 전설따라삼천리 / sbs 생방송투데이 / kbs1 래지나칭칭 / kbs2 생생정보통 / mbc 공감특별한세상 / kbs, vj특공대 / mbc TV특종놀라운세상 / sbs 출발모닝와이드 / kbs2 굿모닝 대한민국 / kbs2 생생정보통 / 불교tv / cmb생방송뉴스 / 실버TV만청문화행사 / tjb 특집프로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 / 팩스 041)832-1187